

실적 기대 꺾여도 목표가 ‘쑥’… 증권가 ‘40만전자·300만닉스’

삼성전자·하이닉스 3분기 전망 하향
환율·유가 부담에 ‘200조’ 기대 흔들
증권가는 양사 목표주가 잇단 상향
AI 수요에 메모리 공급 부족 지속
빅테크 데이터센터 투자 등 확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격화와 급등하는 유가 및 미국 국채 금리 등 여러 악재에 반도체 업체들의 3분기(7~9월)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200조원을 기대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 전망도 실현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증권사들은 반도체 업황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40만 전자, 300만 하이닉스’ 주가를 정당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3분기에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수치를 내놓을까. 국내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분기 200조 달성 기대 하락

13일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 이익은 각각 111조원, 77조원으로 합산 188조원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합산 20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봤었다. 지난 7월 초만 해도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삼성전자 115조원, SK하이닉스



ChatGPT로 생성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I 이미지.

84조원으로 합산 199조원에 달했다.

올해 전체 실적도 한풀 꺾였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은 377조원, SK하이닉스는 263조원이다.

원화값이 뛰면서다. 상반기 환율 급등 효과를 누렸던 이들 기업이 이제는 반대로 환율 급락을 우려해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

DB증권은 삼성전자3분기실적이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면서 ‘견

조한 메모리 출하와 판매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우호적 환율과 시장 예상을 밑도는 MX(완제품 부문) 부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환율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내외 투자와 각종 비용 집행 계획을 살펴보는 등 올해와 내년 사업 계획을 재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주역 반도체 목표가 쑥~

증권사들은 두 회사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삼성전자 평균 목표주가는 48만8409원이다. SK하이닉스 평균 목표주가는 330만5652원이다.

우리의 시선을 보냈던 증권사들도 다시 목표주가를 올려 잡고 있다. 이달 미래에셋증권과 DB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각각 310만원, 230만원으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목표주가 40만원을 제시하며 눈높이를 올려잡았다

증권사들이 다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낙관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균형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요는 강하지만, 제조사는 세계적으로도 소수에 불과하다. 공장 증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탓에 공급이 제한적이다. 증권가에서는 ‘아스트라’ 출시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주도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주가 기대는 코스피까지 밀어올릴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코스피 가한 수준에서 약 80%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에도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되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황이 시장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으로 메모리와 저장장치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티모시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수석 주식전략가는 지난 4일 인터뷰에서 같은 흐름이 2027년에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빅테크의 내년 자본지출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 전망치인 8000억 달러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AI 사업이 당장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모 전략가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계속 지출해야 한다”며 “이는 메모리에는 좋은 일이다. 메모리를 매우 많이 필요로 하는 컴퓨팅 수요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질수록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저장장치 수요도 늘어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반도체 반등에도 떠나는 개미들… 금·원전으로 눈 돌렸다

이달 삼전·닉스 13조 순매도
4개월 연속 순매수 끝내고 ‘팔자’
레버리지 규제에 투자심리 위축

최근 조정 국면에 빠졌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두 반도체의 어지러운 금당락을 경험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주가 반등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5조2120억원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

도 7조8180억원어치 처분했다.

앞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이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며 주가 하단을 지지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의 순매수액은 지난 5월 9조6050억원에서 6월 17조119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7월 5조470억원, 8월에는 2조380억원으로 순매수 규모를 점점 줄였다 이달 들어 ‘팔자’로 돌아섰다.

SK하이닉스 역시 개인이 지난 5월과 6월 15조원대 순매수세를 보였으나, 7월 9조100억원, 8월 1조740억원으로 매수 규모를 줄였다.

지난주 말 오픈AI가 새 인공지능(AI) 모델 ‘아스트라’를 공개한 이후 고용량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감이 번졌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주를 대거 판 모습이다.

3분기 들어 코스피 상승 탄력이 둔화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이후 반도체주 투자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울러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며 환전 부담이 줄어들자 미국 기술주로 향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어 보인다.

ETF 투자도 같은 흐름이다. 반도체에서 금, 원전 등으로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특정 업종(원자재 포함·인버스 제외)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 중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ACEKRX금현물’ (217억원)이었다.

그다음으로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206억원),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 (126억원), ‘TIGER KRX금현물’ (117억원), ‘TIGER코리아원자력’ (108억원),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89억원), ‘KODEX AI전력핵심설비’

(38억원) 순으로 순매수액이 많았다.

반면에 같은 기간 개인은 반도체 관련 ETF를 대거 순매도했다.

‘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791억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875억원),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773억원), ‘KODEX 삼성전지단일종목레버리지’ (-621억원), ‘TGIER 반도체TOP10’ (-538억원) 등이 순매도액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코스피가 고공 행진하던 지난 1~6월 개인의 ETF 순매수세가 반도체 관련 상품에 쏠렸던 것과 대비된다.

/신하의 기자 godhe@



카톡 AI, 상품·장소 추천… 향후 구매까지 연결

》1면 ‘검색·대화 기반…’서 계속

AI챗을 11회 이상 방문한 이용자는 1회 방문자보다 상품 클릭은 2.7배, 장소 클릭은 2배 높았다. AI가 답변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 이용자의 실제 소비 행동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실행’으로… 카톡 자체가 AI 비서

카카오톡은 검색창 대신 카카오톡톡을 택했다. 새로운 AI 앱으로 이용자를 끌어오기보다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자체를 AI의 입구로 바꾸는 방식이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대화 맥락을 이해해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직접 질문하지 않아도 ‘선택’으로 도움을 주고 매일 아침 일정 브리핑과 정보 검색, 상품·장소

추천 등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매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트 AI’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외부 서비스와의 연결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카카오톡은 지난 11일 ‘챗GPT 포 카카오톡’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카카오톡즈’에 다이소물·신한카드·신세계면세점·LF몰 등 7개 파트너 서비스를 추가했다. 카카오톡과 계열사, 외부 파트너를 합쳐 현재 28개 서비스가 연결돼 있다. 특히 외부 연동 서비스는 17개로 자체 서비스 11개를 처음 넘어섰다.

카카오톡이 AI를 통해 카카오톡톡의 서비스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용자는 하나의 대화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호출하고 AI가 이를 연결한다. 카카오톡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메신저에서 사람과 AI, 외부 서비스를 연결

하는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는 셈이다.

◆검색창 다음 주인은 누구… AI 시대 ‘첫 화면’ 경쟁

글로벌 빅테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구글은 검색에 AI 모드와 에이전트 기능을 결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AI 모드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한 이후 월간 활성 이용자는 10억명을 넘어섰다. 오픈AI 역시 챗GPT에서 상품 탐색과 비교 등 쇼핑 기능을 강화하며 대화창을 정보 검색을 넘어 행동이 시작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결국 AI 시대 플랫폼 경쟁의 핵심은 ‘누가 가장 좋은 답을 내놓느냐’에서 ‘누가 이용자의 다음 행동까지 가져가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AI가 검색과 추천을 넘어 예약과 구매, 결제까지 수행한다면 이용자가 여러 앱과 웹사이트를 직접 찾아다니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빛나 기자 vitna@

실적도 주가도 최고… KB금융, 새 3년 시험대

》1면 ‘세대교체 택한…’서 계속

최종 후보자 1인은 회장자격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KB금융그룹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 ▲장단기 간전 경영 노력 등 5개 항목과 25개 세부기준을 토대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조 회주위원장은 “이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어깨 무거워진 차기 회장

KB금융의 실적과 주가가 모두 사상 최고인 상황에서 만큼 차기 회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임기는 11월 21일부터 3년이다. 현 양 회장의 임기 동안 KB금융

의 실적은 2023년 순이익 4조6319억원으로 리딩금융의 자리를 탈환한데 이어 2024년 5조782억원으로 ‘5조 클럽’에 입성했다. 2025년 순이익은 5조8430억원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는 상반기 순이익만 3조8846억원으로 ‘6조 클럽’을 달성할 전망이다. 5만원대였던 주가는 최고 19만원선까지 올랐다.

회주위가 주문한 부분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다. 회주위는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책임자로 이 부문장을 선택했다”며, “금융산업이 재편되고 마니무브가 본격화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KB금융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나갈 만한 역량이 있는 CEO 후보”라고 평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